

한국어 동사의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한 중립동사의 의미분할

이은령·윤애선*†

부산대학교

Eunryoung Lee and Aesun Yoon. 2005. Word Sense Distinction of Middle Verbs for Korean Verb Wordnet. *Language and Information 9.2*, 23-48.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word sense distinction of Korean middle verbs for restructuring KorLexVerb 1.0. Despite the duality of its meaning and syntactic structure, the word senses of middle verb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in current dictionaries. The underspecification causes very often mismatches that a same Korean word sense is used for two different English verb senses. A close examination on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middle verb shows us that the word sense distinc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hierarchical structure are indispensable. Finally, by doing this fine grained word sense distinction, we propose an alternative way of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verb polysemy for KorLexVerb 1.0 as well as for dictionary-like language resour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중립동사(middle verb), 어휘의미분할(word sense distinction), 동사 어휘의미망(verb lexical semantic network), 워드넷(wordnet), 자타양용동사(transitive-intransitive alternation verb), 격교체(case alternation)

0.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어휘의미망(lexical semantic network)의 간접구축방식¹에서 언어 간 어휘의미의 이질성에 기인한 어휘의미분할(word sense distinction)의 준거(criteria)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² 연구의 대상은 동사 어휘의미망과 한국어의 중립동사(middle

*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한국어정보처리연구실 E-mail: eunryounglee@pusan.ac.kr(제1저자), asyoon@pusan.ac.kr(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05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더불어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논문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모두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힌다.

¹ 간접구축방식의 특성에 대해서는 1.1을 참조하라.

² 본고는 다국어에 연동할 수 있는 한국어 동사 어휘의미망을 간접적 방식으로 구축하되, 그 토대가 되는 영어 어휘의미망(Princeton English WordNet; 이후 PWN)에 경도되지 않고 한국어의 독립적인 어휘의미망을 개발한다는 큰 목표 아래, 어휘의미분할의 문제를 단어들 내부의 미시적 관점과 언어 간 이질성을 고려한 비교언어학적 준거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이다.

verb)³로 한다.⁴

한국어 중립동사의 형태적 특성과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국어학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연구가 중립동사를 ‘동사에 접사를 추가하지 않고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로 형태-통사적 정의를 하는 데 관점을 같이하고 있다. 형태-통사적 분석과 의미분석의 결과가 일반 양용동사(transitive-intransitive alternation verb)로부터 일부 중립동사를 판별하는 준거로 쓰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국어에 존재하는 중립동사의 완전한 목록을 추출한 예는 없었다. 또한, 어휘의 통사적 속성을 사전편찬에 적극 활용한 세종사전의 경우에도 ‘일반 양용동사’와 ‘기능 양용동사’를 구분 하였으나, 중립동사를 특별히 하위범주화하지는 않았다. 비록 중립동사가 그 수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중립동사의 구문적 특성은 자연어처리에서 구문분석을 위해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상이한 구문구조를 보이는 중립동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간접구축 방식에 의한 한국어 어휘의미망⁵(KorLex, 이후 KL) 구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인 어휘의미의 분할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이고, 또한 어휘의 통사적 분포와 의미의 상관관계가 어휘의미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장에서 먼저 KL 구축과정에서 중립동사의 어휘의미분할 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KL에 필요한 중립동사의 목록을 추출하고, 중립동사를 다루었던 선행연구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형태, 통사 및 의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KL에서 중립동사의 의미분할의 근거를 밝힐 것이다. 3장은 KL에서 중립동사의 어휘의미분할과 계층구조의 설계를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KL의 어휘

³ 국내에서 ‘중립동사’라는 용어에 대한 영어 용어는 ‘middle verb’ 또는 ‘neutral verb’가 혼재해서 쓰이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 동사가 실현되는 구문구조를 ‘middle construc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립동사’ 대신 ‘중간동사’(김도식·안병길, 2005)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middle verb’와 ‘neutral verb’라는 영어의 용어가 한국어에 적용되었을 때 상이한 언어적 실체를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어 중립동사가 실현되는 구문을 ‘middle construction’으로, 중립동사를 ‘middle verb’로 부른다.

⁴ PWN은 품사별로 다음과 같은 어휘(word)와 어휘의미(word sense)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란 표제어를 말하고 어휘의미는 하나의 표제어가 갖는 하나 이상의 세분화된 의미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휘 ‘love’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는 ‘love0’, ‘love1’, ‘love2’라는 어휘의미로 표현되며 단어에 붙어 있는 숫자는 다의(polysemy)를 표현한다. 또한, 숫자의 순서는 빈도를 나타내며 0의 번호를 갖는 어휘의미가 실제로 코퍼스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갖는다. PWN의 기본 구성단위가 되는 동의어집합(synset)은 동일한 어휘의미의 집합으로 다른 동의어집합과 다양한 의미관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동사 어휘의미망에 있으므로 PWN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Miller(1990), Fellbaum(1998), 이은영·황순희·윤애선 (2004)를 참조하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계
어휘 수	114,648	11,306	21,436	4,669	152,059
어휘의미 수	141,690	24,632	31,015	5,808	203,145

⁵ 부산대학교 한국어정보처리 연구실에서 2004년도부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국어 어휘의미망을 구축해오고 있다. 1단계는 PWN을 한국어로 매핑한 후 어휘전문인력이 수동으로 어휘의미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1단계 결과는 명사의 경우 2004년 9월에, 동사의 경우 2006년 1월 공개할 예정이다. 2단계인 재구조화와 어휘의미분할을 위해 언어학적 준거를 검토하고 있으며, 본고는 그 연구 중 일부이다.

의미분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1. 연구 배경

흔히 워드넷(wordnet)이라고 불리는 어휘의미망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밀러(Georges Miller)가 영어를 대상으로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 지식(mental lexicon)의 저장 체계를 모방하여 구축한 PWN이 선구적이다. 이는 기계번역, 특히 구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휘화된 개념을 관계망으로 조직화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의미망’으로 불리기도 하고, 매우 큰 규모와 방대한 전문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휘의미망은 품사별로 조직화되어, 명사와 동사가 중심을 이루고 영어 워드넷의 경우 형용사와 부사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다.⁶ 또한, 유로워드넷(Eurowordnet)이나 발카넷(Balkanet),⁷ 하우넷(HowNet)과 같이 단일어 어휘의미망을 다국어와 연동하는 경우, 언어 간 교차 번역이나 기계번역, 언어교육에 그 활용도가 높다.⁸ 국내에서도 카이스트의 코어넷(CoreNet), 울산대의 유윈(U-Win)을 비롯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포항공대 등의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⁹ 그러나 어휘의미망이 일부 품사, 특히 명사에 한정되고 동사 어휘의미망은 코어넷에서 일부 구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축된 바 없어 실제 자연어 처리에 적용 가능한 자료 규모와 성능을 가진 한국어 동사 어휘의미망 구축이 요구된다.¹⁰

1.1 구축방식에 따른 특성과 한계

어휘의미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어휘의미의 분류와 계층구조의 망을 모두 단일어 사전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직접구축방식이다. 직접구축방식은 개별언어의 언어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어휘의미의 분류가 다른 언어에 경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국어와의 연동성이 낮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간접구축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구축된 어휘의미망을 토대로 (반)자동 내지 수동으로 대역하고, 목표언어의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정제 및 재구조화 과정을 거쳐 목표 언어의 어휘의미망을 구축한다. 비록 1차적인 대역 과

⁶ 중국어-영어의 개념망인 하우넷은 어휘의미망과는 달리 품사별로 개념을 표상하지 않는다.

⁷ 발카넷 구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Tufiş et al. (2004)를 참조하라.

⁸ 유로워드넷과 발카넷은 트리 구조인 PWN을 근간으로 간접 구축되었고, 하우넷은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중국어에서 글자가 표상하는 개념을 그래프 구조로 표상하고 있으며, 중국어 고유의 어휘의미망을 우선 구축하고 이를 영어와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⁹ 국내에서 개발된 어휘의미망 중 코어넷은 일본 NTT의 시소러스를 근간으로 간접방식으로 개념을 대역한 후, 고빈도 및 기초 한국어 어휘를 개념을 할당하였다. 또한, 중국어-한국어-일본어를 연동한 다국어 어휘의미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KOTERM)가 2005년에 발간한 ‘한국어 어휘의미망’(총 3권)을 참조하라. 유윈은 한국어 백과사전을 근간으로 상향식 직접구축방식으로 개발된 명사 단일어 어휘의미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포항공대의 어휘의미망은 명사에만 국한한다.

¹⁰ 코어넷 동사는 1,758개 어휘의 5,290개 어휘의미를 포함한다.

정 이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2차 또는 수차례에 걸친 정제 과정과 확장이 필요함에도 20년이 넘는 직접구축방법에 비해 간접구축방법의 경제성은 매우 높다.¹¹ 현재 PWN을 근간으로 하는 간접구축 방식의 개별언어 어휘의미망에는 KL뿐만 아니라 유로워드넷이나 발카넷 등이 있다.¹²

PWN을 근간으로 어휘의미망을 구축할 때에는 출발언어인 영어와 목표언어 간의 개념 또는 구조적 차이로 인해 실제로 어휘의미망의 정제 과정에서 매우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도출된다. 이는 많은 언어문화 전통을 공유하는 영어와 유럽어 사이의 대역보다, 한국어와 같이 매우 이질적인 언어로의 대역에 훨씬 다양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표출되며, 목표언어 어휘의미망이 재구조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는 한편으로 KL이 PWN에 경도되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의미분할의 분류 준거와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PWN의 분할된 어휘의미의 적절성을 역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어휘의미의 분할에 관한 기준은 각 어휘의 개별적 의미 특성 때문에 쉽게 일반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동사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적어도 어떠한 통사적 규칙성을 보이는 어휘의 집합에 대해서는 일반화할 수 있는 의미 분할의 준거를 모색하고자 한다.

1.2 어휘의미분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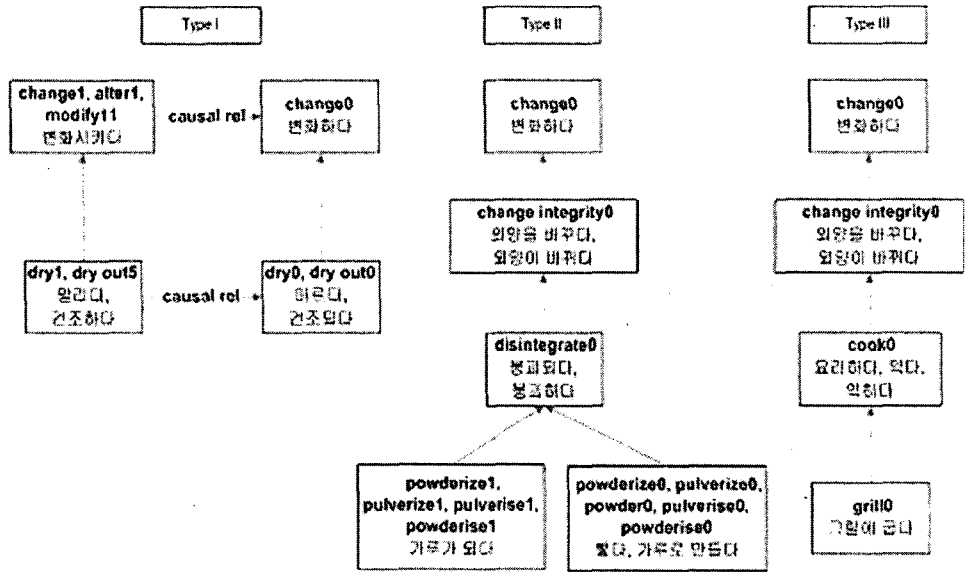
KL 내에서 어휘의미의 분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PWN의 의미 분류 양상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서 출발하겠다. KL에서 중립동사의 처리 문제는 PWN의 이른바 격 전환 또는 격교체(case alternation)을 하는 동사를 처리하는 문제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영어에서 격전환은 동일한 형태의 영어 동사가 자동구문, 타동구문과 중립적 구문(middle construction)에서 모두 실현될 때 동사 논항의 격이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휘의미망에서는 일반적인 동사의 문장 구조의 차이가 의미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일반 어휘사전에서 타동사로서 용법과 자동사로서 용법을 분리하여 기술하고 있듯이¹³ ①‘어휘의미망 내에서 이들을 다의어로 분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또한 ②‘다의어로 구분한다면 그 기준과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¹¹ 본 연구에서 간접구축을 하는 1차 단계에서는 PWN의 각 어휘의미를 표준국어사전에 분류된 어휘의미로 대응시켰다. 이때 사전에서 한국어 어휘의미가 분화되지 않아 영어 어휘의미에 중복 대응되는 현상이 3452개(전체 자료의 25%)로 나타났다. 중립동사의 어휘의미분할은 이러한 문제 중 한 유형이다. 따라서 2차 단계는 ① 표준국어사전에 나타난 의미분할의 정확성 및 일관성 검토, ② PWN에 적용된 의미분할 일관성 검증, ③ KL에 적용될 의미분할의 준거 설정이라는 3가지 초점을 갖고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어휘의미망으로 PWN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¹² 참고로 유로워드넷은 1996-1999사이에 구축되었고 발카넷은 2001-2004년 사이에 구축되었다. 유로워드넷에 대해서는 Vossen (1998)을 참조하라.

¹³ 일반 어휘사전에서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서의 용법을 기술하고 상세한 문장구조(예를 들어, 전치사, 보충절의 유무와 문법구조)는 하위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이 독립적인 표제어항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PWN과 같은 대용량 언어자원에서는 이러한 의미 분류가 때로는 비일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은령·윤애선 (2005)에 따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타동’의 구문에서 ‘대격-비대격’의 격전환을 하는 동사의 어휘의미를 분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림 1]은 해당 동사의 비일관적 의미분류와 계층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이은령·윤애선, 2005:149).



[그림 1] PWN에서 자·타동사의 비일관적 의미분류의 예

예를 들어, PWN은 ‘dry’(말리다, 마르다)에 대해서 자동으로 쓰일 때(dry0)와 타동으로 쓰일 때(dry1)의 의미를 구분하고 상위어와 계층구조 또한 이러한 개념의 양상을 분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유형의 동사 ‘grill’ (그릴에 굽다, 그릴에서 구워지다)은 타동과 자동의 쓰임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상이한 의미가 하나의 의미(grill0)처럼 취급되고 있다. 또한 ‘powderize’와 같은 경우는 자동사일 때(powderize1)와 타동사일 때(powderize0)에 대해 각각 의미 구분을 하나, 계층 구조에서 동일한 최종노드를 공유한다. 즉,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일관적이지 않고 계층구조 설정에 있어어도 자·타의 의미구분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일 유형 동사에 대한 상이한 분류는 동의어집합의 구성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설정에도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휘의미망에서는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을 유발하는 의미를 가진 어휘와 그 행위의 결과 관계에 있는 동사들은 인과관계(causal relation)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dry’와 같이 ‘말리다’의 의미와 ‘마르다’의 의미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grill’의 경우는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표현하는 의미를 분할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어휘의미망이 자연어 처리나 정보검색에 활용될 경우 함의관계나 인과관계와 같은 의미 관계는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이나 행위 간의 논리적 관계 및 시간적 전후관계를 추론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휘의미의 일관적인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그 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국어에서 나타나는 중립동사의 의미 분할과 분류는 체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중립동사의 특성

중립동사란 형태적으로 ‘동사 가운데 접사가 붙지 않고 그대로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양용되는 것’을 일컫는다. 중립동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타동사와 자동구문 연구나 국어의 능격성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거나(남기심·고영근, 1985; 우형식, 1997; 한송화, 2000; 고광주, 2003 등),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서의 중립동사를 다루기(연재훈, 1989; 김문오, 1996; 박순남, 1997; 김종을, 1990 등)도 하였다. ‘원형적 양용동사’(김문오, 1996) 또는 ‘능격동사’(能格動詞)(고광주, 2003)라고 일컫기도 하는 중립동사는 타동성과 자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통사적으로 두 개 이상의 문장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립동사는 일반 자타양용동사와는 그 통사적·의미적 양상이 달라서 언어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구문적 정의만으로 중립동사를 추출해 내기 힘들다. 실제로 자타양용동사와 중립동사와의 경계를 짓는 기준이 학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이 중 절대적 기준을 정하기에는 ① 국어의 격교체의 문제의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기술이 미진한 상태이며 ② 중립동사에 대한 연구가 형태적이거나 통사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되어 의미적 차원과의 연계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목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립동사의 통사구조를 기본으로 추출하되 한국어 동사 어휘의미망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동의어 관계에 있는 어휘와의 공통적인 의미 속성에 의한 결정 방법을 선택하였다.

2.1 중립동사의 구문구조

중립동사의 구문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중립동사의 구문구조¹⁴

- a. 타동구문 : NP_i-이 NP_j-을 V
- b. 자동구문 : NP_j-이 V

¹⁴ 여기서 중립동사의 구분구조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모든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중립동사 구문을 옮겨 적은 것이다.

여기서 중립동사는 타동구문의 N_j 논항이 자동구문의 N_j 의 논항과 대응관계를 보인다. 이는 한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문장구조를 갖고 각각 표면적인 격조사의 교체로 인하여 타동구문과 자동구문을 실현하는 자타양용동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의소(sememe)를 유지하면서 (1)의 구문구조를 만족시키는 중립동사를 가리켜 김문오 (1996)는 ‘원형(prototype)적 양용동사’¹⁵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국어사전 또한 중립동사에 대해 특별한 표지를 두지 않기 때문에 (1)의 구문과 일반 국어사전을 이용하여 중립동사를 추출하기란 매우 어렵다. 물론 사전의 정의문에서 ‘~ 또는 ~’라는 표현을 통하여 특정 동사들의 이중 구문 또는 이중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문의 기술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한자어 명사와 ‘하다’가 결합한 형태의 동사에 대해서는 명사의 정의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가령 ‘감산(減産)하다’의 의미는 ‘감산(減産)’의 의미를 통해 유추해야 하는데 이는 ‘자산이 줄어듦. 또는 자산을 줄임’으로만 표현되고 있다.¹⁶ 따라서 중립동사의 두 가지 구문에 따른 두 개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모든 중립동사에 대해 이러한 정의문 형식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동사가 중립동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전마다 견해가 다르며 또한 중립동사를 따로 분류하여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L에서 활용될 중립동사의 추출을 위해서는 자료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결정기준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전자사전의 용언의 하위부류정보를 이용하였다.

세종전자사전은 용언의 어휘의미 기술을 위하여 통사구조와 의미역과 같이 통사 및 의미의 하위범주를 세분화하여 어휘의미를 명세화하고 있는데 이 중 형용사 범주를 제외하고 동사의 경우 7개의 하위범주¹⁷로 나눈다. 그중 ‘자타 양용동사’라는 하위 범주는 자동-타동구문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격교체¹⁸ (또는 격조사 교체) 현상을 보인다. 세종전자사전에서는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의 격구조와 타동사의 격실현 구조를 동시에 보일 때 이를 일반 자타 양용동사(FIT)로 따로 분류해 놓고 있다.¹⁹

¹⁵ 김문오 (1996)는 양용동사를 원형과 비원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N_j 논항의 명사구가 자동구문과 타동구문에서 동일성으로 두고 있다. 즉, 자동구문과 타동구문에서 N_j 논항의 명사가 동일하지 않으면 비원형양용동사로 본다.

¹⁶ 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중립동사의 정의문을 KL의 중립동사 목록을 제시한 본 고의 부록에 옮겨놓았다. 한자어 명사와 ‘하다’가 결합된 경우 동사의 정의를 따로 주지 않고 한자어 명사의 정의를 참조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무장하다’의 의미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 또는 그 장비’로 표현되어 중립동사의 의미가 모두 반영될 수 없다.

¹⁷ 동사의 7개 하위범주는 일반자동사(FIN), 기능자동사(SIN), 일반타동사(FTR), 기능타동사(STR), 일반자타양용동사(FIT), 기능자타양용동사(SIT), 보조동사(Vaux)이다.

¹⁸ 고광주 (2003)는 동일한 두 문장구조에서 하나의 동사가 논항에 각각 다른 격을 부여하는 격교체(주격, 대격의 교체) 현상은 격교체가 아니라 특정 동사 어휘가 복수의 격구조가 있고 이것이 표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한다.

¹⁹ 일반적으로 국어의 타동구문에서 목적어 논항은 격조사 ‘-를’의 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항상 대격이 부여될 수는 없다. 세종전자사전에서의 타동사란 대격 격표지의 유무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자타양용동사로 분류된 동사에 대해 실제 명사 논항이 대격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격표지의 유무에 따라 타동과 자동으로 나눈다. 다만, 우리는 세종사전에서 자타양용 동사로 분류된 ‘-를’ 격조사를 가진 피동사는 타동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세종전자사전에서 자타 양용동사로 분류된 동사어휘는 모두 1,145개이다. 그러나 세종전자사전은 중립동사를 독립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종전자사전의 자타 양용동사의 격정보와 용례를 검토하여 199개의 중립동사를 추출하였다.²⁰ 여기서 중립동사를 판단하는 최초 기준은 (1)의 통사적 구조를 만족시키는 동사를 뽑지만 (1)의 구문을 바탕으로 중립동사를 추출할 때 김문오 (1996)와 같이 (1)의 구문에서 확장된 구문을 접하게 된다.

- (2) NP_i -이 NP_j -를 NP_k -로/를 V ; ‘향해하다’, ‘움직이다’
 NP_j -이 NP_k -로/를 V
- (3) NP_i -이 NP_j -를 NP_k -에 V ; ‘귀속하다’, ‘연접하다’
 NP_j -이 NP_k -에 V
- (4) NP_i -이 NP_j -를 NP_k -과 V ; ‘융합하다’, ‘접합하다’
 NP_j -이 NP_k -과 V
- (5) NP_i -이 NP_j -를 NP_k -(-으)로 V ; ‘분화하다’, ‘발현하다’
 NP_j -이 NP_k -(-으)로 V

(2)~(5)의 구문에서는 (1)의 구문과는 달리 다양한 의미역을 갖는 논항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다. 그러나 부가된 논항은 NP_i 와 NP_j 의 역할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또한 중립동사 구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NP_j 항의 격교체 현상에 아무런 외부적 변화조건이 되지 않는다. 즉 (2)~(5)의 구문에서도 NP_j 논항은 목적어에서 주어로 교체된다

(2)의 구문은 ‘-로/를’의 격표지를 갖는 논항이 부가되며 이때 각 동사의 의미에 따라 논항은 ‘방향, 목적지, 도달점’의 의미역을 갖는다. (3)의 자동구문에서는 장소에 대한 초점화가 이루어져 있다. (4)의 경우는 세종전자사전이 상호동사로도 분류한 일부 동사가 이 분포를 보인다. 즉, $\langle NP_i$ -이 NP_j 을 NP_k -과 (서로) V \rangle 를 보이는 일부 상호동사가 $\langle NP_j$ -이 NP_k -과 (서로) V \rangle 의 구문을 보이는 경우이다. (5)의 구문에서 NP_k 논항은 결과상태의 의미역을 갖는다. 즉 변화를 나타내는 중립동사 부류가 주로 분포되는 구문이다.

그러나 (1)~(5)의 구문 중 어느 하나의 구문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경우에 대해서는 중립동사로 간주하지 않았다.²¹

첫째, 피동사가 목적어를 가져 (1)의 a와 b구문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중립동사 구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영희가 철수에게 손을 잡혔다.’처럼 피동사 ‘잡히다’가 이중

²⁰ 그러나 이렇게 추출된 중립동사의 목록은 결코 완전한 목록이 아니며 출발 자료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²¹ 본 연구의 입장과 같이 동일한 형태가 사동사와 타동사 또는 피동사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 이를 자타 양용동사와 중립동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재훈 (1989), 김문오 (1996), 박순남 (1997) 등에서 모두 공통적이다. 연재훈 (1989)의 ‘분포적 기준만으로 중립동사를 가려내는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의미적 기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기본 근거가 된다.

격구조를 갖는 경우는 대격 표지인 '-을'과 주격 표지인 '-이'가 각각 표면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실제 논항의 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위의 (1)의 구문을 만족시키는 동사의 형태가 각각 동일 형태를 갖는 피동사와 사동사인 경우에는 중립동사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 예를 들어 '깃발이 날리다'와 '깃발을 날리다'의 경우로서 '날리다'는 각각 피동사와 사동사로 구별이 된다. 피동사와 사동사는 의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어휘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1)의 구문을 만족하는 동사로는 '움직이다', '내리다', '이동하다'와 같은 일부 이동동사와 변화를 나타내는 '감군하다', '개국하다' 등과 같이 한자어 명사와 '하다'가 결합한 동사들과 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1)의 구문을 만족하는 동사는 비교적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어휘가 동형어의어가 아닌 다의어일 때 모든 의미에 중립동사의 구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중립동사 구문을 만족할 수 있는 명사 논항에도 의미의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량하다'는 N_j 가 '몸무게', '체중'인 경우에만 중립동사 구문이 가능하다. 동사 '그치다'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N_j 가 자연현상일 때에는 중립동사 구문이 가능하지 않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 비가 그쳤다.

(7) ?(하늘이) 비를 그쳤다.

동사 '그치다'는 (6)의 구문을 용인하나 (7)의 구문에서는 부자연스럽다. 이는 자연현상을 두고 행위주를 구체화하여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6)과 (7)의 예는 중립동사의 구문적 특성이 논항의 의미 속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² 중립동사의 목록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1)의 구문을 만족함과 동시에 (6)과 (7)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연결 속성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각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립동사 추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중립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2.2 중립동사의 의미적 특성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재검토하면서 중립동사가 가진 의미적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립동사 어휘의미분할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중립동사의 세 가지 의미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중립동사의 타동구문에서 주어 논항을 차지하는 명사는 술어에 대해 사역주 역할을 한다. 둘째, 중립동사의 자동구문에서 술어는 피

²² 이러한 이유로 연재훈 (1989)에서는 타동구문의 중립동사는 동사의 사동형과 동의관계를 이룬다는 의미적 속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중립동사의 특성에 대한 소절에서 하기로 한다.

동형과 동의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셋째, 중립동사의 자동과 타동구문에서 동사 앞에 오는 주어 논항 명사의 의미역은 비분리 소유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2.2.1 타동구문의 주어의 의미역. 중립동사의 의미적 특성은 통사적 분포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중립동사가 타동구문을 이루는 경우 주어 논항의 의미역은 행위주역(agentive)이고 목적어는 그 행위를 받는 대상역(thematic)이다. 또한, 자동구문의 경우에는 주어 논항은 행위성의 유무에 따라 행위주역 또는 대상역을 받는다. 이렇게 중립동사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 기능 외에 타동과 자동의 의미 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중립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분석이 시도되었다. 특히, 중립동사로서의 용법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연재훈(1989)은 중립동사의 타동구문과 자동구문이 의미적 동일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중립동사의 타동구문의 주어는 사역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위주라고 인식되어 왔던 중립동사의 타동사문의 주어에 대해 사역주 역할로 그 의미적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연재훈(1989)에 따르면 중립동사의 타동사문을 ‘-게 하다’의 자동구문으로 환언했을 때 두 구문이 동의관계를 이룸을 들면서 이를 중립동사의 판별기준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신체 부위 명사를 보어로 갖는 동사 또는 ‘꼬집히다’와 같이 피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경우 이를 자동구문으로 환언하게 되면 의미상 어색하게 되므로 ‘꼬집히다’는 중립동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가령 다음의 문장에서 (8)의 자동구문인 (9)는 자연스러우며 (8)과 동일한 의미가 있게 되고 능동형 ‘움직이다’와 자동형 ‘움직이게 하다’는 동의어처럼 취급된다.

- (8) 그가 바위를 움직였다.
- (9) 그가 바위를 움직이게 하였다.
- (10) 그는 그의 얼굴을 꼬집었다.
- (11) ?그는 그의 얼굴을 꼬집게 하였다.
- (12) 철수의 입술이 삐죽거렸다.

또한 (10)의 의미는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우나 (11)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다. (10)의 타동사구문의 ‘꼬집다’를 (11)의 자동사 구문의 ‘꼬집게 하다’와 동의관계로 놓을 수 없음이 바로 ‘꼬집다’가 중립동사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 이유는 타동사라면 타동성을 드러내는 사역의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데, 특히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명사가 그 ‘꼬집다’와 같은 동사의 대상으로 올 때 ‘사역’의 의미와 ‘(부정적 행위의) 대상’이 상충하게 되므로 (11)의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연재훈(1989)의 이러한 의미적 기준을 (12)의 ‘삐죽거리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 이유는

(12)의 사역 구문 ‘철수가 입술을 삐죽거리게 하였다’는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삐죽거리다’와 같은 신체 부위 명사를 보어로 갖는 중립동사에 사역 구문을 적용시키는 경우 구문의 주어는 해당 신체 부위의 소유자로 보기 힘들다.²³

이후 중립동사의 타동구문과 동사의 사동구문의 의미적 동질성은 우형식 (1996), 박순남 (1997), 한송화 (2000)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반박된다. 즉, 중립동사의 타동사문의 동사와 사역형 간의 동의관계는 항상 인정되지는 않으며 우형식 (1996)은 타동구문의 중립동사는 사동뿐만 아니라 능동의 의미와도 대응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중립동사의 타동구문의 동사의 의미의 특성을 비교해 보자.

(13) 농업조합이 쌀값을 내렸다.

(14) 농업조합이 쌀값을 내리게 했다.²⁴

(15) 쌀값이 내렸다.

(16) 그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17) 그는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13)에서는 ‘내리다’가 중립동사로서 동일한 구문에서 타동과 자동사로 쓰이는 예이다. 연재훈의 예를 따르면 여기서 ‘내리다’는 ‘내리게 하다’와 의미상 동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형식 (1996)²⁵과 박순남 (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능동형의 ‘내리다’와 사동형의 ‘내리게 하다’는 동일한 의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동사의 타동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동으로의 전환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능동형과 사동형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3)의 문장에서는 ‘내리다’의 행위주가 ‘농업조합’이 되나 (14)에서 ‘내리다’의 행위주는 ‘농업조합’이 아닌 제3의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이 중립동사의 타동구문에서 능동과 사동의 의미상의 차이는 사동형과의 환언이 중립동사의 판단기준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타동구문의 중립동사에는 능동 또는 사동이라는 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어휘의 의미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KL에서 중립동사의 어휘의미를 타동구문일 때의 의미와 자동구문일 때의 의미를 분할해야 한다는 본 고의 견지를 뒷받침해 주는 첫 번째 근거라고 하겠다.

²³ 여기서 연재훈 (1989)의 사역구문과의 의미적 동질성이라는 기준과 한송화 (2000)의 비분리소유관계라는 의미적 기준이 부분적으로 상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²⁴ (13)과 (14)의 예문은 박순남 (1997:221)에서 빌어왔다.

²⁵ 우형식 (1996)에서 중립동사의 타동구문은 사동사와, 자동구문은 자동사와 대치 가능에 부분적으로 반박하면서 타동구문의 중립동사는 사동뿐만 아니라 능동의 의미와도 대응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사나 형용사의 사동사는 사동(남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시키는)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능동적 의미가 강하다.’라는 근거를 들어 보인다.

(16)과 (17)의 ‘글썩거리다’는 연재훈 (1989)과 한송화 (2000)에서 중립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연재훈 (1989)에 의하면 (16)의 ‘글썩거리다’가 자·타동구문에서 모두 무리가 없으나, ‘그가 눈물을 글썩거리게 하였다’라는 사동구문에서는 어색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동구문과의 동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경우에만 중립관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거리다’류 동사 중에서 ‘글썩거리다’는 예외적으로 중립동사가 아니라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동구문 환언 가능성은 중립동사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썩거리다’를 굳이 중립동사의 목록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2.2.2 자동구문과 피동화. 중립동사의 또 다른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직관적으로 자동구문에서의 중립동사가 피동구문과 환언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구문의 주격 논항 명사 - 즉, 타동구문의 대격 논항-가 실제 행위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동구문의 주어는 대상의 의미역을 갖는다.

(18) 전기다리미가 너무 과열하여 불이 날 뻔했다.

(19) 전기다리미가 너무 과열되어 불이 날 뻔했다.

‘과열하다’의 자동구문 (18)은 (19)의 피동구문과 환언이 된다. 즉, 대상인 전기다리미가 스스로 행동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동구문과 자동구문의 환언이 가능한 것이다. 상태성 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명사+하다>류의 동사는 ‘되다’, ‘-어지다’, ‘-당하다’ 등의 접미사 파생에 의한 피동사 구문과 환언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중립동사가 자동구문에서 피동사와의 환언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신체와 결부된 ‘-거리다’, ‘-대다’류의 동사와 <부사+하다> 형태의 동사는 피동화가 불가능하다. 피동구문과의 환언 가부는 동사의 피동화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중립동사의 자동구문과는 일관적인 관계는 없다. 따라서 이는 중립동사의 자동구문에서 주어가 행위성 존재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사의 상적 가치와 피동화 가능성²⁶에 따른 것으로 개별 어휘의 의미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다.

2.2.3 비분리 소유관계와 의미역. 세 번째 중립동사의 의미적 특성으로는 이미 한송화 (200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립동사의 타동구문의 대격 논항은 그 구문의 주격 논항과 비분리 소유관계(inalienable possession), 즉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객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타동구문의 주어와 비분리 소유관계에 있는 명사가 타동구문의

²⁶ 국어 용언의 피동화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윤신 (2001)에 의한 피동화 제약은 상당히 설명력이 있어 보이나 남승호 (2004)에서 부분적으로 그 적용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대격 논항으로 오는 경우 자동구문에서 주어 논항의 자리에 나타나지만 실제의 행위성(agentivity)을 갖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 (20)-(23)를 비교해 보자.

- (20) 그는 갑자기 차를 멈추었다.
 (21) (그가 타고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었다.
 (22) 그는 철수가 타고 가는 차를 멈추었다.
 (23) 철수가 타고 가는 차가 멈추었다.

(20)의 문장에서의 주어 논항은 (21)의 자동구문에서 수의적이 되나, 의미적으로 (21)의 주어인 차를 멈추게 하는 행위주가 되고 자동구문에서 주어 논항에 오는 명사는 비분리소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위주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 이 점을 한송화 (2000)에서는 중립동사의 자동구문에서 나타나는 주격 논항은 행위주역이 아니라 대상역이 되어야 함을 보이며 이를 중립동사의 의미적 제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22)에서도 ‘멈추다’가 중립동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22)의 주어가 ‘철수가 타고 가는 차’의 외부에서 제지시킨 것이 아니라 차 내부에서 또는 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22)의 문장에서의 주어가 ‘철수가 타고 가는 차’ 밖에 있어, 목적어와 비분리 소유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때 ‘멈추다’의 의미는 ‘제지하다’ 또는 ‘멈추게 하다’의 의미로서 ‘멈추다’와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3)와 같이 중립동사의 자동구문에서의 주어논항에 오는 명사에는 행위주의 의미역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의미역이란 일정한 술어에 대해 논항들이 갖는 이 일반화된 의미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립동사에서 특히 초점이 주어지는 부분은 (1)-(5)의 구문에서 모두, 타동문의 대격 논항과 자동구문의 주격 논항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격 논항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역은 행위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행위주는 술어가 표시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거나 유발시키는 논항으로, 원형적인 행위주 논항은 일반적으로 의식이 있고 행동이 가능한 주체여야 한다. 술어의 의미에 따라 문법적 주어는 행위주, 수혜자, 영향주, 경험주 등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타동구문에서 목적어 논항은 격조사 ‘-를’의 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항상 대격이 부여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립동사의 자타 구문에서도 각각의 격교체의 대상이 되는 논항의 의미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동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세종전자사전의 자타양용동사에서 추출된 중립동사들에는 자동구문에서 대상역이 아니라 행위주역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중립동사 추출이 세종전자사전의 자타양용동사의 목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종전자사전의 의미역 설정기준²⁷과 의미역 할당의 원칙에 대한 이의를

²⁷ 세종전자사전의 용언 부분에서 사용된 의미역의 종류는 총 11개로 다음과 같다.: ①행위주(Agent: AGT), ②경험주(Experiencer: EXP), ③동반주(Companion: COM), ④대상(Theme: THM), ⑤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오류로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한송화 (2000)의 중립동사의 자동구문에서 주어 논항의 의미역 제한은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인다. 중립동사의 자동구문의 주어 논항에 대격이 아닌 행위주를 의미역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24) 태조 왕건은 서기 918년에 고려를 개국하였다.

(25) 고려는 서기 918년에 개국하였다.

(26) 대통령은 군(軍)을 수도에 집결하였다.

(27) 군(軍)이 수도에 집결하였다.

한송화 (2000)의 의미적 제약에 따르면 중립동사에서 (24)와 (25)에서처럼 구문 구조가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구문의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는 타동구문의 대격 논항의 의미역을 그대로 받는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대격 논항이 일반적으로 술어가 표현하는 행위나 과정의 결과로써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지배하거나 유발시키지 못하는 논항이기 때문에 자동구문에서 주어 논항의 명사가 비록 술어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타동구문의 주어가 자동구문의 실제적 행위주라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4)와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국하다’, ‘집결하다’에서 대격 논항에 오는 ‘국가’, ‘군(대)’와 같은 명사는 (25)과 (27)의 자동구문에서 그 의미역을 대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경우 (24)의 목적어 논항인 ‘고려’의 의미를 (25)에서의 ‘고려’와 다른 의미로 간주할 수도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28) 고려는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29) 고려는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냈다.

(28)과 (29)에서 ‘고려’는 타동구문의 주어로 문장의 술어를 행하는 주어로 기능하고 있으나 행위주의 원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려’라는 국가명이 어떠한 행동력을 가진, 예를 들어 국민, 정부, 왕 등의 인식적 요소를 내포한다면 이는 행위주의 조건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를 인식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28)과 (29)의 문장에 대한 의미역 할당은 행위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이미 Jackendoff (1990)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하나의 통사 논항에 하나의 의미역이 할당되어야 하는, 즉 ‘통사적 논

장소(Location: LOC), ⑥도착점(Goal: GOL), ⑦결과상태(Final State: FNS), ⑧출발점(Source: SRC), ⑨도구(Instrument: INS), ⑩영향주(Effector: EFF), ⑪기준치(Criterion: CRT). 이상의 의미역은 세종전자사전의 선택 사항이지 한국어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미역의 목록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선희 (2004)에서는 세종의 의미역 중 ⑦, ⑨, ⑩, ⑪을 뺀 7개의 의미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의미역 목록은 잠정적이며 비한정적이다.

항과 의미역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바로 보여 준다. 의미역 할당의 문제는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로 (25)과 (27)의 행위주역과 대격의 의미역 선택 문제에서 대격이 행위주에 우위하는 해석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렇게 중립동사 중 자동구문에서 주어 논항에 '국가'와 같이 집단, 단체, 제도적 기관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행위주라는 의미역 할당이 합당하다.

3. 중립동사의 의미분할과 계층구조

2장에서 중립동사의 구문 구조와 의미적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립동사는 국어학 및 일반 언어학에서 국어의 격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자동구문과 타동구문의 의미가 미분화되어 공존하는 중립동사를 명백히 그 구문적 분포에 따라 다의어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히 언급된 바 없다.²⁸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립동사에 대한 연구가 통사론적 관점에서 격교체 및 격구조의 분포를 고찰하였고, 중립동사의 의미적 특성 또한 중립동사를 판별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대표적으로 격교체 현상에 대해 영어 동사를 분류한 Levin (1993)의 연구 또한 다의어 분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적인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²⁹ 그러나 실제 사전이나 KL과 같은 언어자료를 구축하는 경우에 중립동사의 처리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 이유는 중립동사의 경우처럼 통사적으로 뚜렷하게 상이한 두 개의 문장 구조를 가진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구문으로 실현될 때, 이를 두 개의 의미로 볼 것인가 하는 다의어 분할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KL에서는 ① 이러한 중립동사의 특성을 고려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의미를 분할할 것인지, ② 분할된 중립동사의 두 의미를 어떻게 계층구조에 반영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장에서는 KL에서 중립동사의 의미를 분할해야 하는 어휘 의미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 의미 분할 및 계층구조에서의 자리매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술한다.

3.1 KL에서 중립동사의 의미 분할 근거

우리는 2장에서 중립동사의 통사적 분포와 이중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중 (1)~(5)의 구문 구조에서 나타나는 분포적 특성은 중립동사가 자동구문과 타동구문에서 의미를 따로 분할할 수 있는 통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 가지 의미적 특성은 모든 중립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어휘의 개별적인 의미

²⁸ 한송화 (2000:359)는 미분화되어 쓰이던 중립동사가 쓰임이 많아지면서 각각 별개의 어휘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재훈 (1989)은 사전에서 중립동사의 용법을 명시화할 필요성은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²⁹ 영어에서 중립동사의 의미분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Palmer et al. (2001)과 Nirenburg and Raskin (2004) 또한 워드넷과 같은 대용량 어휘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어휘 의미분할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성에 내재하여 중립동사를 다의어로 기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는다. 결국, KL에서는 중립동사의 모든 의미적 특성을 기제로 하여 개별적으로 어휘를 검토하고, 용례를 참고하여 어휘의미를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KL의 구축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의미 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복 대역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대역어 정제를 위한 언어학적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의 'overheat'라는 단어가 PWN에서 두 개의 어휘의미(word sense)를 갖는다고 하자. 이는 각각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의 구문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 경우, 한국어의 '과열하다'가 이에 대한 대역어로 나타난다. 이 경우 한국어 어휘사전에서는 '과열하다'가 각각 통사적 구문 및 의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하나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overheat'의 두 의미에 중복적으로 대역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휘의미망의 기본 조건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첫째, KL의 동사 어휘의미망에서 의미의 최소단위는 어휘의미이고 어휘의미망 내에서 각각의 어휘의미는 동일한 어휘의미의 집합인 동의어집합(synset)으로 묶인다. 어휘의미망 내에서는 동의어집합이 하나의 노드이며 이는 어휘의미 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의관계가 설정되는 단위이다. 결국, 어휘의미망에서 동의어집합이란 동일한 어휘의미가 있는 어휘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 언어의 어휘의미망 내에서 어떠한 의미 X를 갖는 동의어집합은 유일하다. 이러한 어휘의미망의 기본 전제 조건은 어휘의미를 망의 구조에 위치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과열하다'라는 중립동사의 의미가 과연 하나의 동의어집합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과열하다'와 동의어집합을 이룰 수 있는, 즉 동일한 어휘의미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과열하다'는 경우에 따라 (18-1)처럼 '과열되다'의 의미로 혹은 (30)처럼 '과열시키다'의 의미를 갖는다.

(18-1) 전기다리미가 너무 과열하여/과열되어 불이 날 뻔했다.

(30) 그는 전기다리미를 너무 과열하여/과열시켜 불을 낼 뻔했다.

중립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다룬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타동구문에서 사동형과의 의미 환언관계와 자동구문에서 피동형과의 환언관계는 KL에서 해당 중립동사의 의미 분할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사동형 혹은 피동형과의 환언 관계에 있다는 말은 특정 구문에서 해당 중립동사가 파생형과 동의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의미적 기준 중 '치환 가능성(substitutability)'은 동의관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⁰ 결국, 우리는 '과열하다'는 '과열되다', '과열시키다'의 의

³⁰ 일반적으로 동의관계 혹은 유의관계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반의어검증, 나열 검증, 문법 체계 검증, 치환검증 방법을 쓴다. 각각의 검증 방법은 일종의 여과 과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치환가능성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검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치환 가능성은 유로워드넷, KL 등에서 동의어 관계 검증을 위해 쓰이는 방법이다. 자세한 동의어 관계 검증방법은 김준기 (2000)를 참조하라.

미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각기 다른 파생 접미사의 교착에 의해 상이한 어휘의미를 보이는 3개의 어휘의미는 두 개의 다른 동의어집합 {과열하다0, 과열되다}, {과열하다1, 과열시키다}를 구성하게 된다.

3.2 KL과 중립동사의 의미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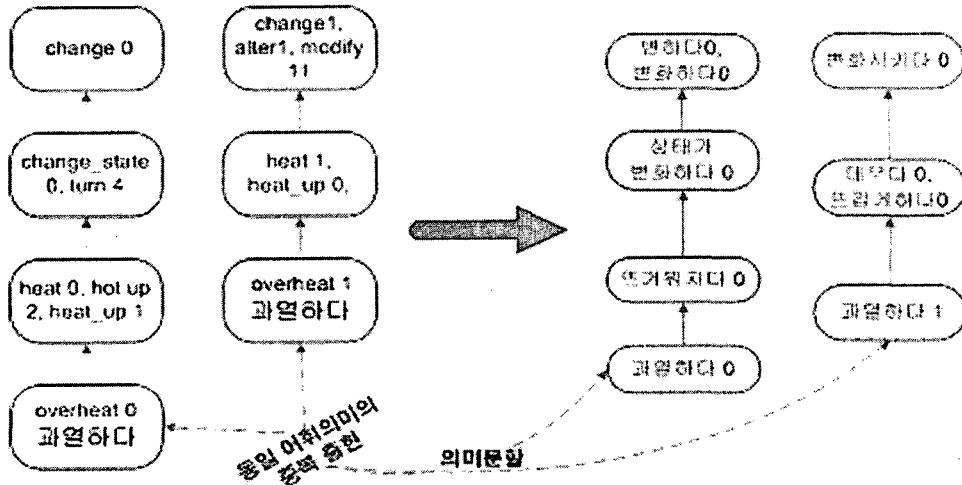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3.1에서 제시된 중립동사의 의미 분할의 필요성에 따라 실제 어휘의미망에서 의미 분할을 하고 계층구조 속에 통합하는 재구조화 과정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어휘의미망 구축과정에서는 한 어휘의 의미가 결정되고 나면 이 의미를 계층적 망구조 내의 위치를 결정해 주어야 하며 하나의 어휘의미에 대해 수직적(상·하위), 수평적(동의·반의 등) 의미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KL과 같이 간접구축의 방법을 쓰는 경우, 이 위치는 대략적³¹으로 출발언어의 어휘의미망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출발언어에 부재한 한국어 어휘의미를 추가할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새로운 노드를 형성해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계층구조를 새로 추가해주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중립동사 ‘과열하다’의 의미를 2개로 나눌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PWN을 근간으로 한국어 동사 어휘의미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과열하다’는 실제로 영어 어휘 ‘overheat’가 갖는 2개의 어휘의미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사전에서는 중립동사인 ‘과열하다’의 의미를 세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KL에 적용시킨다면 ‘과열하다’는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있는 계층구조에 중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는 어휘의미망에서는 어휘의미가 유일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 2]처럼 ‘과열하다’를 각각 ‘과열하다0’과 ‘과열하다1’로 나누고 여기에 구문에 따라 치환 가능한 동의어가 동의어집합을 함께 형성하게 된다.

[그림 2]에 잘 나타나듯이 ‘과열하다’의 경우는 기존의 어휘의미망에 자동사로서의 의미와 타동사로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노드가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계층구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중립동사의 의미를 두 개의 어휘의미로 분할하였을 때 이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노드가 PWN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새로운 어휘의미를 생성·추가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는 KL의 확장 기준에 따라 노드의 위치와 계층구조를 설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어휘의미 추가 과정이 있다.

- (ㄱ) 의미를 분할하고 분할된 의미를 기존의 KL 노드의 동의어집합에 추가
- (ㄴ) 의미 분할을 하여 노드를 생성하며 기존 계층구조에 추가
- (ㄷ) 의미 분할을 하여 노드 생성을 하나 KL에는 상·하위어의 계층구조가 없는 경우, 새로운 계층구조를 추가

³¹ PWN의 계층구조가 한국어 어휘의미의 구조에 잘 맞지 않는 경우, 재구조화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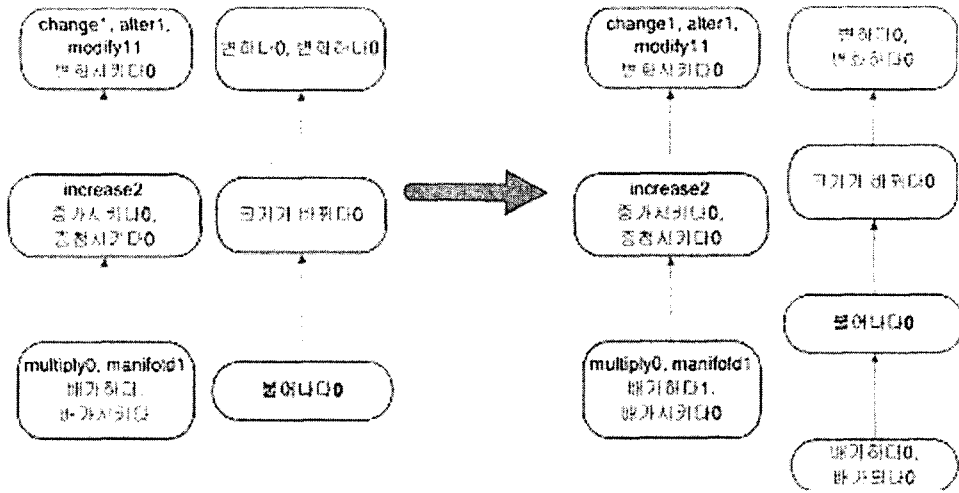
[그림 2] ‘과열하다’의 의미분할과 위치

우선 (가)의 경우는 [그림 2]의 ‘과열하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나)의 경우는 KL에서 중립동사 ‘배가하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KL에서는 ‘배가하다’³²의 의미가 자동사의 의미로 영어의 multiply0, manifold1에 대역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배가하다’의 의미를 분할하여 자동구문의 ‘배가하다’의 의미를 KL에 등재할 때 자동성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계층구조를 찾아 [그림 3]처럼 그 하위어로 추가해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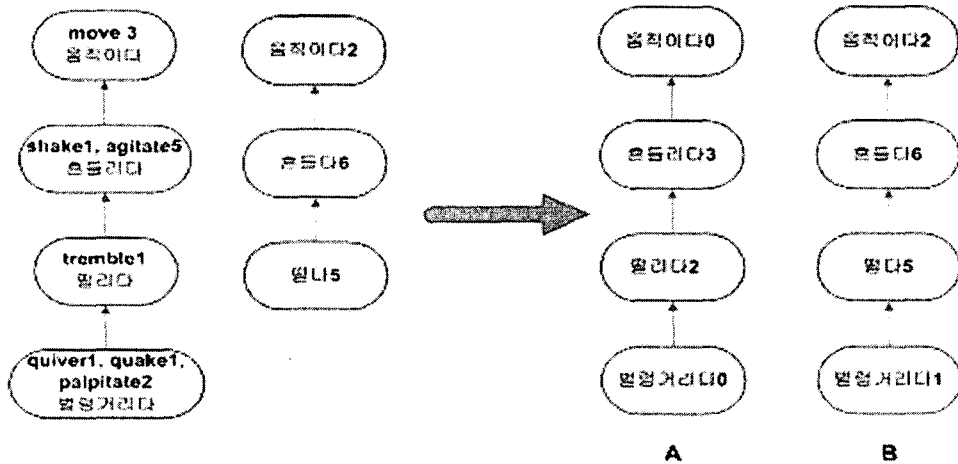
한편 (c)에서 설명한 의미 분할과 KL 내 위치 선정은 새로운 어휘의미를 추가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즉 해당 어휘의 상위어를 선정하고 이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가 KL 내에 존재하는 확인하고 이의 하위어로 추가해 주는 방법으로 중립동사 ‘벌렁거리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벌렁거리다’는 KL 내에서 자동사의 의미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의미 분할을 한 후 위치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동사의 타동성을 반영한 상위계층 구조의 노드 또한 의미 분할 및 추가의 대상이다.

[그림 4]에서는 ‘벌렁거리다’뿐만 아니라 최상위어 ‘움직이다’ 역시 중립동사로서의 의미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벌렁거리다’를 의미 분할하고 기존의 구조를 자동구문의 의미를 위한 계층구조 A로 쓰고, 타동구문의 의미를 위한 계층구조 B를 설정한다. 그런데 PWN에서는 ‘벌렁거리다’와 ‘움직이다’의 타동구문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의미 노드가 부재한다. 여기서는 자동구문의 의미 계층구조를 참조하여 타동구문의 계층구조를 설정하게 되는데 ‘벌렁거리다’의 경우 기존의 자동사의 계층구조와 대칭되는

³² ‘갑절 또는 몇 배로 늘어남. 또는 그렇게 늘림.’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그림 3] ‘배가하다’의 의미분할과 위치



[그림 4] ‘떨렁거리다’의 의미분할과 계층구조의 재구성

구조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그림 4]에서와같이 ‘떨렁거리다1’의 계층구조에서는 ‘떨다5’, ‘흔들다6’ 그리고 ‘움직이다2’가 추가되었다.

기존 노드에 부재하는 어휘의미를 추가함과 동시에 계층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미 Nirenburg and Raskin (2004)이 지적한 바와 같

이 어휘의미 취득(lexical acquisition) 과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론은 없다. 즉, ‘벌렁거리다’와 같은 중립동사에 대해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계층구조를 대칭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반면 예를 들어 [그림 2와 3]의 ‘과열하다’와 ‘배가하다’와 같은 중립동사의 타동과 자동(피동) 쌍의 계층구조는 반드시 대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타동사와 자동사의 상위어로 상정할 수 있는 개념의 어휘화(lexicalization) 정도와 어휘 형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결과 및 향후 과제

세종전자사전에서 추출한 중립동사 195개를 KL에 사상(mapping)하였더니 61개의 중립동사가 KL 대역어로 선택되었고 이 중 두 개 이상의 다른 노드에 중복되어 대역된 중립동사는 10개였다. 여기서 10개의 중립동사는 3.2절에서 기술한 (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PWN 대역 구조에서 해당 중립동사의 타동과 자동구문의 의미가 나누어져 있는 계층구조에 대응된 경우이므로 의미 분할만 필요한 경우였다. 그 외 나머지 51개의 중립동사는 의미 분할과 계층 구조 설정이 모두 필요한 경우였다. 의미 분할과 계층구조 설정의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중립동사 수	분할 및 추가된 동사의 의미 수		PWN의 계층구조 수정
		타동성	자동성	
(ㄱ)	10	-	-	없음
(ㄴ)	46	29	17	없음
(ㄷ)	5	4	1	있음
계	61	33	18	

[표 1] 중립동사 의미 분할과 계층구조 설정 결과표

[표 1]은 한국어 중립동사의 의미를 자동과 타동구문일 때로 나누어 이를 KL의 의미 노드에 적용시킨 예를 보여준다.³³ 특히, (ㄱ)과 (ㄴ)의 경우가 대부분의 중립동사 의미 분할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립동사의 어휘의미가 한국어 사전에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ㄷ)의 경우는 PWN의 격전환 동사의 어휘의미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PWN에 한국어 중립동사의 의미가 부재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따라서 (ㄷ)의 경우는 PWN 자료의 일관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KL에 대응되지 않은 중립동사 134개에 대해서는 KL의 동사 확장 과정에서 추가되어야 할 대상이다. 확장이라 함은 PWN의 대역과정에서 누락되거나 PWN에 부재한 한국어 고유의 어휘의미를 추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휘의 빈도와 기초 어휘 여부에 따른 추가 목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

³³ 그러나 이 표의 결과에는 대조 언어학적 가치는 없음을 밝혀둔다.

가 방법은 위 [표 1]에서 나타난 (ㄱ)-(ㄷ)의 의미분할과 같이 PWN 계층구조의 활용과 수정에 준할 것이다.

4. 끝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휘사전에 그 용법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립동사의 의미를 통사적·의미적 특질에 따라 의미 분할을 할 필요성을 고찰하고, 분할된 중립동사의 어휘의미를 KL에 표현하고, PWN과 동일한 어휘의미 계층 구조를 가진 KL를 재구조화하였다. 중립동사의 어휘의미분할은 고유한 KL으로 나아갈 KL의 정제 과정에서 해당 동사의 어휘의미분할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의미의 미분화로 인해 나타나는 PWN과의 대역어휘 중복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한다. 따라서 이는 KL이 향후 자연어 처리에서 구문분석의 성능을 보강하고 의미 분석의 중심자료로 활용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어휘의미망을 구축할 때에는 일반 어휘사전의 오류 수정뿐만 아니라 어휘사전에서 세분화하지 못한 다의어 분류를 함께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언어학적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전이라는 어휘의 목록과는 반대로 어휘의미망에서는 어휘의미의 목록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유기적인 의미 관계 속에 연결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구축방식에 의한 KL 구축을 위해서는 정제과정에서 대역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의어의 의미 분류 방법론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립동사는 KL 내에서 어휘의미분할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나아가 PWN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정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참고 자료>

- 영어 워드넷 데이터베이스 2.0버전 (2004)
- 표준국어대사전 (웹버전)
- 세종전자사전 (2004)

<참고문헌>

- Fellbaum, Christiane. 1998. *WordNet-A lexical databas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Gomez, Ferdinando. 2003. Grounding the ontology on the semantic interpretation algorithm.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WordNet Conference*, pp. 124-129. Global Wordnet Association.
- Jackendoff, Ray. 1990. *Semantic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Levin, Beth.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iller, Georges. 1990. Nouns in Wordnet: A lexical inheritanc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3.4, 245-264.

- Nirenburg, Sergei and Victor Raskin. 2004. *Ontological semantics*. MIT Press.
- Palmer, Martha, H.C. Dang, and Christiane Fellbaum. 2001. Making fine-grained and coarse-grained sense distinctions, both manually and automatically. *Journal of Natural Language Engineering* 1.
- Tufiş, D. et al. 2004. BalkaNet: Aims, methods, results and perspectives. A general overview. *Romania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1-2, 9-43.
- Vossen, Piek. 1998. *Euro Wordnet: A multilingual database with lexical semantics networks*. Kluwer Academic Publisher, Dordrecht.
- 고광주. 2003. 국어의 격교체 구문 연구. *한국어학* 18권, 389-408. 한국어학회.
- 김도식·안병길. 2005. *영어 동사 부류와 교체현상: 예비 조사*. 한국문화사.
- 김문오. 1996. 자/타 양용동사의 범주와 문형. *어문학* 57호, 1-19. 한국어문학회.
- 김윤신. 2001.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중을. 1990. 현대불어의 중립동사와 중립관계. *원우론집* 17호, 339-364.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준기. 2000. *한국어 타동사 유의어 연구*. 한국문화사.
- 남기심·고영근. 2004 (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승호. 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39.1, 111-14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남승호. 2004. 한국어 술어의 의미 유형 연구: 다의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2004년 겨울학술대회 발표문에서*.
<http://ling.snu.ac.kr/nam/papers/LSK-lecture-winter-2004.PDF>.
- 박순남. 1997. 중립 동사 구문의 정의. *한글* 236호, 195-223. 한글학회.
- 연재훈. 1989. 국어 중립 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203호, 165-188. 한글학회.
- 우형식. 1996. *국어 타동 구문 연구*. 박이정.
- 이은령·윤애선. 2005. 피동 정보를 통한 한국어 동사 어휘의미망 정제. *한국어학* 28호, 139-165. 한국어학회.
- 이은령, 황순희, 윤애선. 2004. 다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2집, 369-402.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임동식. 2002. 한국어 자타양용동사의 격 교체 현상과 사건구조-중립동사와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 한송화. 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부록 <KL의 중립동사 목록>³⁴

번호	표제어	정의(표준국어대사전)	용례
1	가속하다	속도를 더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최근 10년 동안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u>가속화</u> 하였다.
2	가시화하다	어떤 현상이 실제로 드러남. 또는 실제로 드러나게 함.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곧 <u>가시화</u> 할 것으로 보인다.
3	감량하다	수량이나 무게를 줄임.	몸무게가 갑자기 <u>감량</u> 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4	개봉하다	새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함.	그 영화가 어제 <u>개봉</u> 했다.
5	개시하다	시장을 처음 열어 물건의 매매를 시작함	시장이 9시에 <u>개시</u> 한다.
6	개원하다	병원이나 학원 따위와 같이 ‘원(院)’자로 끝나는 기관을 세워 처음으로 일을 시작함. 또는 그 기관이 하루의 업무를 시작함	이 병원은 <u>개원</u> 한 지 얼마 안 됐다
7	개화하다	사람의 지혜가 열려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따위를 가지게 됨.	일찍부터 <u>개화</u> 하여 남 먼저 기독교인이 된 여옥의 부친
8	개회하다	회의나 회합 따위를 시작함. 또는 의회, 전람회, 박람회 따위를 열.	시의회의 임시회가 <u>개회</u> 했다.
9	결속하다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함.	우리가 <u>결속</u> 하여 그들의 성공을 저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10	결집하다	한곳에 모여 뭉침. 또는 한곳에 모아 뭉침	변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이 사회의 혁신 세력이 <u>결집</u> 해 그 과업을 이행해 나갈 거야.
11	결합하다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	원자들이 <u>결합</u> 하면 분자를 형성한다.
12	경과하다	어떤 단계나 시기, 장소를 거침.	힘든 시련 속에서 사춘기가 <u>경과</u> 했다.
13	공산화하다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몽골은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u>공산화</u> 한 나라이다.
14	과열하다	지나치게 뜨거워짐. 또는 그런 열.	다리가 <u>과열</u> 하여 지금 식히고 있는 중입니다
15	그슬다	불에 걸만 약간 타게 하다.	책 표지가 연기에 조금 <u>그슬</u> 었다.
16	그치다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	선수들은 휴식을 <u>그치</u> 고 다시 경기에 들어갔다.

³⁴ 여기서 제시하는 중립동사의 정의문과 용례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용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종전자사전의 용례를 썼으며 또한 용례는 모두 자동사 구문으로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자가 중립동사를 자동구문과 타동구문에 삽입하여 중립동사임을 판단할 때 타동구문보다 자동구문에서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어 명사와 ‘하다’의 결합방식의 동사에 대해서는 명사의 정의를 그대로 참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목록에서도 해당 동사의 어근 명사의 정의를 그대로 씀을 밝혀둔다. 사전자료를 활용하게 해 주신 국립국어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17	글썩이다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그득하게 고이다. 또는 그렇게 하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u>글썩였다</u> .
18	기계화하다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노동을 기계가 대신함. 또는 그렇게 함.	수산물의 가공업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u>기계화하였다</u> .
19	깜빡거리다	큰 눈이 자꾸 감졌다 뜨었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졸린듯한 그의 눈이 <u>깜빡거렸다</u> .
20	내리다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내년부터 기름값이 <u>내린다고</u> 한다.
21	내리꽂다	별 따위가 세차게 아래로 비치다.	손전등 빛이 지하실에 <u>내리꽂였다</u> .
22	내재하다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그 사건에는 위험한 요소가 <u>내재하고</u> 있다.
23	덜컹덜거리다	크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쳐 울리는 소리가 자꾸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자꾸 내다.	창문이 <u>덜컹덜거렸다</u> .
24	멈칫하다	하던 일이나 동작을 갑자기 멈추는 모양.	전차길을 건너서 종각 앞으로 오니 줄지에 그는 두 다리가 <u>멈칫하였다</u> .
25	멈추다	뜻 01: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 뜻 02: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	차가 <u>멈추었다</u> .
26	몰살하다	모조리 다 죽임. 또는 그런 죽음.	그의 가족은 <u>몰살했다</u> .
27	무장하다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 또는 그 장비.	전 군이 기념일을 맞아 단단히 <u>무장했다</u> .
28	발산하다	냄새, 빛, 열 따위가 사방으로 퍼져 나감.	왕비 민 씨의 눈에서는 칼날보다 더 예리한 광채가 <u>발산하고</u> 있었다.
29	발아하다	씨앗에서 싹이 틈.	며칠 전에 심은 씨앗이 벌써 <u>발아하였다</u> .
30	발진하다	출발하여 나아감. 주로, 엔진의 힘으로 배나 비행기 따위가 기지에서 출발하는 것을 이른다.	전차 한 대와 무한게도 장갑차 한 대가 <u>발진했다</u> .
31	발현하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남. 또는 그렇게 나타나게 함.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u>발현한</u> 것으로 독립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32	배가하다	갑절 또는 몇 배로 늘어남. 또는 그렇게 늘림.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소득이 <u>배가하였다</u> .
33	번쩍이다	큰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멀리서 등대불이 <u>번쩍였다</u> .
34	벌렁거리다	몸의 일부가 아주 가볍고도 재빠르고 크게 자꾸 움직이다.	그는 흥분을 하면 얼굴이 벌게지고 콧구멍이 <u>벌렁거린다</u> .
35	부식하다	금속이 외부로부터의 화학 작용에 의하여 금속이 아닌 상태로 소모되어 가는 일. 또는 그런 현상.	상수도 파이프가 <u>부식하였다</u> .

36	부화하다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옴.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계란이 <u>부화하였다</u> .
37	부흥하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왕이 즉위하고 불교가 다시 <u>부흥했다</u> .
38	분화하다	단순하거나 등질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인 것으로 변함.	본래의 기능이 세 가지 기능으로 <u>분화하다</u> .
39	빚나가다	기대나 예상과 다르다.	예측이 <u>빚나가다</u> .
40	뿌리내리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근원이나 바탕이 이루어지다.	유학이 <u>뿌리내리기</u> 시작한 때는 고려 시대이다.
41	세계화하다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과학이 <u>세계화하다</u> .
42	세속화하다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거기에 물들어 감.	성직자의 타락으로 교회가 <u>세속화하였다</u> .
43	소멸하다	사라져 없어짐.	소중한 민족의 오랜 유산들이 날로 <u>소멸해</u> 가는 판국이라 슬프다.
44	수축하다	부피나 규모가 줄어들음.	이달에 들어 갑자기 통화량이 <u>수축했다</u> .
45	움직이다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다. 또는 자세나 자리를 바꾸다.	내가 다가가려 하자 그의 몸이 갑자기 <u>움직였다</u> .
46	이사하다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지난 주말 회사가 <u>이사했다</u> .
47	일렁이다	크고 긴 물건 따위가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다.	호수에는 조각배가 <u>일렁이고</u> 있었다.
48	재군비하다	한 번 폐지하였던 군대나 군사 시설물 따위를 다시 갖추음.	병사들은 <u>재군비하여</u> 전쟁터로 다시 나갔다.
49	접합하다	한데 대어 붙임. 또는 한데 닿아 붙음.	이 이율배반적인 두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적절히 <u>접합하여</u> 마침내는 공존하는 제도로 정착하였다.
50	증감하다	많아지거나 적어짐. 또는 늘리거나 줄임.	조차(潮差)는 월령의 변화에 따라 <u>증감한다</u> .
51	증식하다	늘어서 많아짐. 또는 늘려서 많게 함.	이자를 놓았던 돈이 그동안 <u>증식하여</u> 큰돈이 되었다.
52	지척거리다	힘없이 다리를 끌면서 자꾸 억지로 걷다.	술에 만취한 그의 다리는 심하게 <u>지척거렸다</u> .
53	항해하다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님	이 배는 오랫동안 대양에서 <u>항해했다</u> .
54	향상하다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짐	소득 수준이 <u>향상하고</u> 있다.
55	환원하다	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u>환원하였다</u> .
56	황폐화하다	집, 토지, 삼림 따위를 거두지 않고 그냥 두어 거칠고 못 쓰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들음.	많은 등산객으로 등산로가 <u>황폐화하다</u> .
57	회전하다	어떤 것을 축으로 물체 자체가 빙빙 돌음.	프로펠러가 <u>회전하면서</u> 바람을 일으켰다.

58	훈련하다	무술이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기본자 세나 동작을 되풀이하여 익힘.	소대원들이 열심히 <u>훈련하고</u> 있다.
59	휘다	꽂꽂하던 물체가 구부러지다. 또는 그 물체를 구부리다.	자가 <u>휘어서</u> 선을 그을 수가 없다.
60	휴회하다	하던 회의를 멈추고 잠깐 쉬.	국회가 한 달 동안 정쟁으로 <u>휴회하고</u> 있다.
61	흔들거리다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다리가 <u>흔들거린다</u> .

접수 일자: 2005년 11월 10일

게재 결정: 2005년 12월 18일